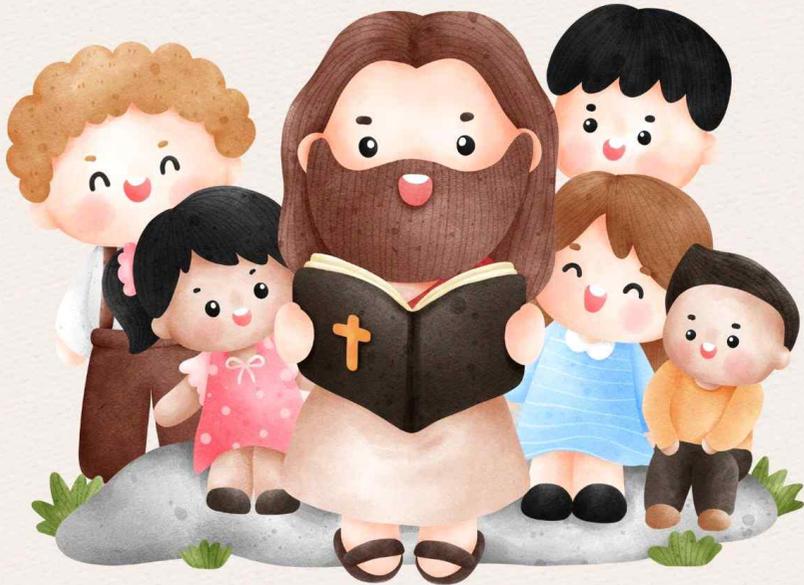




## 가정

#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



충일교회 가정예배부

## 설교

안녕하세요, 친구들! 높은 미끄럼틀 앞에 서면 다리가 후들거려서 “나 못 타겠어!” 하고 주저앉은 적이 있나요? 우리 마음속에는 가끔 멋진 목표 앞에서도 겁이 많아져요.

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한 후 “성이 크고 주민이 강하다”고 듣고 떨며 원망했어요. “우리에게 너무 어려워! 그냥 원래 있던 광야로 돌아가자!” 하고요. 하지만 갈렙은 달랐어요.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. “우리가 능히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!”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믿고 담대히 나아갔어요.

하나님은 백성의 두려움을 보시고 “두려워 말라, 내가 너와 함께 가서 그 땅을 주겠다”고 약속하셨어요. 갈렙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면 두려움도 물러갑니다. 우리도 시험을 앞두고 나 발표할 때, 또는 어두운 골목을 걸어갈 때 갈렙의 고백을 기억해 보세요.

무서울 때마다 눈을 감고 “하나님, 제가 당신 약속을 믿어요” 하고 기도해 보세요. 그리고 친구에게도 “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!” 라고 알려 주면 서로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.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이루시며, 힘들 때마다 손을 꼭 잡아 주시는 든든한 분이시니까요. 그러니 이제부터 무서울 때 “우리도 하나님 약속을 믿어요!” 하고 큰 소리로 외쳐 볼까요?

충일교회 가정예배부

